



개 관

한-몽골 협력 사업인 ‘몽골 무형문화재 보호제도 구축 지원사업’은 양국 내 관계자 간 수 차례의 협의를 거쳐 2008 년도에 공식적으로 착수되었다.

2008 년에 ‘몽골 유네스코 인간문화재 제도 보급’이라는 표제 하에 1 차년도 사업이 시행되었다. 1 차년도에는 여러 나라의 법적 문서를 조사 및 대조하여 몽골에 적용할 수 있는 초안 마련 등의 문서작업, 몽골에 적합한 입법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초기 무형문화유산 보호 자료의 보완 등이 주를 이루었다.

2 차년도 사업은 2009 년에 ‘몽골 무형문화재 보호제도 구축 지원사업’이라는 표제 하에 시행되었고 사업 틀 안에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를 발굴하는 주요 조사가 몽골의 여러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이러한 조사 외에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진흥에 관한 심포지엄, 몽골 내 유네스코 프로그램 인간문화재 제도 이행에 관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더불어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진흥을 위한 권고안’과 ‘무형문화유산 전수 교육 모듈’이 마련되었다. 2008 년에 마련된 자료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호 제도의 기틀을 구축하는데 극히 중요한 일이었으며, 실로 성공적인 사업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자료에는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 발굴 및 등록 규정’, ‘몽골 무형문화유산 국가 목록’, ‘무형문화유산과 보유자의 지정, 등록, 보호, 전승, 개발, 진흥을 위한 국가 지원 규정’,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 지정을 위한 국가협의회 규정’이 포함된다.

최종적으로, 2 차년도 사업의 기틀 안에서 무형문화유산 가이드북의 초안 작업이 실시되었다.

3 차년도에는 2 차년도에서 마련된 초안을 상세히 기술하는 작업, 무형문화유산 관련 사진 수집, 도서 레이아웃 작업 및 디자인, 발간이 이루어졌다. 결과물로, ‘몽골의 무형문화유산’이라는 272 쪽의 도서가 발간되었으며, 2010 년 12 월 8, 9 일 이틀 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출판기념회 및 사업 평가회의가 개최되었다.